

투데이

“한우값 폭락, 키울수록 손해본다”

암송아지 값 54% 하락 불구 생산비는 13% 증가 한우협 “정부 무대책이 한우농가 도산 촉발” 집회

추석을 앞두고 한우 가격 하락에 반발한 전남지역 한우사육 농민 2000여명(이하 주축 측 추산)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전국한우협회와 전국에서 모인 한우농가 농민 1만여명은 12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사료값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한우 가격 하락으로 한우 농가들이 파산 직전에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우 암송아지 가격 하락폭이 심각하며, 추석 이후 더욱 폭락할 우려가 큰 만큼 한우산업 회생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전국한우협회 측은 “암송아지 평균가격이 2010년에 비해 54.1%나 폭락했지만 송아지 생산에 드는 비용은 13%나 오르는 등 정부의 무대책이 한우농가 도산을 촉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송아지 생산비는 2010년보다 13.7% 증가한 306만 1000원이다.

반면 한우 암송아지 산지 가격은 2010년 217만원에서 2012년 7월에는 99만8000원으로 54.1%나 떨어져 마리당 100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

전남도 조사에서도 현재 한우 암송아지 가격이 10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만원가량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한우협회전남도지회 민경천 회장은 “몇 달째 사료값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정부는 사료값 폭락 대책을 마련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페업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차원의 암소 수매 ▲사료값 폭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페업 보상 ▲송아지 생산 안정제 ▲한중 FTA 반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농민들은 우마차에 사료부대를 싣고 여의도공원에서 국회까지 행진했다.

○광목기자 kroh@kwangju.co.kr



“한우농가 생존권 보장하라”

12일 오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우농가 생존권 쟁취를 위한 한우인 총궐기대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한우를 앞세우고 국회 앞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국장, 市 행정 문제제기 시의원에 “웃기는 소리 말라” 문자메시지 발송 논란

광주시 국장이 시 사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시의원에게 비아냥거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시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원들은 의원총회 소집 등을 고려하는 등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환경생태국 A국장은 12일 김도 의원에 보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는 김도 의원이 전남 본회의장에서 광주시가 상무소각장 폐쇄를 추진하고 생활쓰레기를 고체연료화하는 RDF(Refuse Derived Fuel) 생산시설 건립 방안이 졸속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시의회에서는 담당 국장이 시의원

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비아냥대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 조소성 운영위원장은 “시 행정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한 시의원에게 주무국장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원기기자 cki@kwangju.co.kr

“농수산물 재해보상법 제정” 전남도의회 촉구 결의문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는 12일 임시회를 열고 농수산물 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태풍 등 자연재해의 최대 피해자인 농·어민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대책법과 재해보상법을 아우르는 농수산물 재해보상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농수산물 피해 가구에 실질적 보상책 마련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이상 기후로 농어업 피해가 잦아지는 만큼, 국가차원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광목기자 kroh@

국회 지방재정특별위 영아 무상보육 재정지원 촉구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는 12일 ‘영아 무상보육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 민주당통합 간사인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결의안은 ▲2012년도 영아 무상보육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비 추가부담분 6639억원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과 ▲정부가 향후 영아 무상보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3D 컨버팅 기술력 이르면 내일 밝혀진다

‘캠코’美 파트너사 LA현지 최종 기술테스트

광주시의 3D 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분야 한미합작투자사업 ‘캠코’와 관련해 미국 LA 기술테스트가 본격화되면서 이르면 오는 14일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캠코의 미국 측 파트너인 K2AM과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은 10일(현지 시각)부터 11일까지 이를 동반 미국 LA K2벤처인 인스파이어사에서 예비테스트를 벌인데 이어 12일부터 13일까지 K2AM측의 전문가 3명과 GCIC측 전문가 1명이 참여해 최종 기술테스

트를 벌일 예정이다. 최종 기술 테스트는 지난해 7월말 광주에서 시연했던 샘플 필름 55초 분량과 이번에 새로 준비한 필름 65초 분량 등 총 2분(120초) 분량에 대해 이뤄진다.

이번 테스트에서 GCIC와 K2AM이 합의한 10배 이상의 3D 컨버팅 속도가 나올 경우 캠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10배 미만일 경우 테스트 실패에 따른 사업 중단 등이 우려된다. 이에 앞서 실시된 예비테스트에서

는 센트럴라이즈드(Centrallized) 시스템과 워크스테이션을 통해 정상적인 작업 속도와 품질이 나올 수 있는 지 여부를 점검했다.

김병술 GCIC 대표는 “12일부터 13일까지 최종 테스트를 하면 14일께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브리튼 리 K2AM회장은 11일 미국 LA 인스파이어사에서 진행된 미국측 회사의 기술 테스트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산지급금 650만달러에 대한 회계 검사 자료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제주 해저고속철 건설·국가방사선과학원 설립

전남도, 지역발전 현안 10대 대선공약 건의

전남도는 오는 12월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각 정당들의 공약으로 반영할 ‘전남발전 10대 공약과 지역발전 현안 34개 과제’를 선정, 12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과제는 ▲5GW 풍력단지 조성 ▲F1대회 정부지원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송정~목포 간 고속철도 건설 ▲전남~제주 간 해저고속철 건설 ▲국가방사

선안전과학원 설립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미래형 소재산업 메카 조성 ▲친환경 수산 증양식 기반 구축이다.

또 지역발전 현안과제는 환황해 경제권과 동북아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식량안보 자급기 구축 ▲미래 신산업 ▲휴양·관광·문화 개발 ▲SOC 등 4대 분야로 나눠 제시했다. 식량안보 자급기 구축 분야는 농

어업·농어촌 활성화지원 특별법 제정, 농생명 융합 수출전략단지 조성 등 6개 과제이며, 미래 신산업 분야는 목포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방송통신 복합클러스터 조성 등 15개 과제다.

이 밖에 휴양·관광·문화 개발 분야는 사파리아일랜드 조성, 행복 은퇴 도시 건설 등 6개 과제이고, SOC 분야는 무안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 실현,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 등 7개 과제를 제시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내년 국비 2조4천억 목표”

姜시장, 중앙부처 방문 막바지 총력전

강운태 광주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이날 2013년 정부예산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기획재정부 이석준 예산실장을 비롯한 예산총괄심사관, 경제예산심사관, 행정예산심사관, 사회예산심사관 등을 방문해 광주시의 국

비지원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비 1000억원, 3D융합 산업육성 50억원,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사업 4억원, LED융합산업 허브 기반구축 15억원, 5·18아카이브 구축 20억원을 비롯해 광주비엔날레



와 관련된 사적 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 아시아 아트컬처파크 조성 사업 등 신 규사업의 예산 지원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도 현안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비 2조4000억원을 목표로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lucky@kwangju.co.kr

대출금리:연5.5%~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현재의 부채상황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예시: 행정6급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리모델링전	부채현황	1년이자비용
농협중앙회	70,000,000원	4,600,000원
씨티은행	15,000,000원	2,100,000원
지역농협	10,000,000원	1,170,000원
상생카드론	9,000,000원	1,880,000원
다달이저축	8,000,000원	2,800,000원
SC저축은행	37,500,000원	11,200,000원
솔로몬저축	15,000,000원	4,485,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7,800,000원
총부채	180,450,000원	36,035,000원

리모델링후	부채현황	1년이자비용
농협중앙회	100,000,000원	6,750,000원
농협중앙회	40,000,000원	3,200,000원
씨티은행	50,000,000원	4,500,000원
총부채	190,050,000원	14,450,000원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2011-3430067-25-5-00028 주소: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 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일부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도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직항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부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율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액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율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율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090204-중-4738호